

- 도시철도 7호선 용마산역의 “용마폭포공원” 병기에 대한 청원 -

검 토 보 고

1. 경 과

- 청 원 자 : 서울시 중랑구 면목7동 동아아파트 102동 406호 오화근 외 1,276명
- 소개의원 :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 교통위원회)
- 접수일자 : 2016. 8. 25.
- 회부일자 : 2016. 8. 26.

2. 청원요지

-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용마폭포공원은 동양최대의 인공폭포와 함께 인공암벽장인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이 들어섬으로써 명실상부 최고수준의 공원으로 탈바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아 지역 주민만의 명소에 머무른다는 아쉬움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작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도시철도 7호선 용마산역에 “용마폭포공원”을 병기해 줄 것을 요청함

3. 소개의원 요지

- 용마폭포공원은 동양최대의 인공폭포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인공암벽장인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이 들어섬으로써 명실상부 최고 수준의 공원으로 탈바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아 중랑구민 이외 지역주민의 방문이 많지 않은 실정임
- 이에 따라 용마폭포공원 인근에 위치한 7호선 용마산역의 역명에 용마폭포공원을 병기함으로써 용마폭포공원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방문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런 측면에서 용마산역에 용마폭포공원의 병기를 요청하는 동 청원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청원을 소개하니, 관련 부서의 적극 검토를 바랍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역명 병기는 국가·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에는 기관과 단체 등의 민원 해소 및 지하철 운영기관의 수익 창출을 위해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으로 수요 흡수 함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청원의 개요

- 동 청원은 서울시와 중랑구의 대표명소인 용마폭포공원의 활성화와 지역상권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에 “용마폭포공원”을 병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지하철 역명은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가 수립한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 개선계획』¹⁾에서는

역명의 병기와 관련하여 “국가·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에는 유상관매를 통해 역명을 병기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²⁾³⁾

- 동 청원의 대상이 되는 용마폭포공원⁴⁾은 1991년 개장 이래 중랑 스포츠 클라이밍경기장, 대형 잔디광장, 높이 21미터와 51미터의 인공폭포와 연못 등 다양한 체육·여가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1996년 11월 7호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한 용마산역은 2010년 이후 승객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에도 신규 수요를 창출할

1) 서울특별시상 방침 제377호(2015.12.13.)

2) 유상관매 외에 역명병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인자 부담으로 함

3) 최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9개역(방배역, 을지로입구역, 명동역, 압구정역, 홍제역, 서대문역, 강동역, 청담역, 단대오거리역)에 대해 유상관매를 실시하여 7억 87백만원(서울메트로 4억 96백만원, 도시철도공사 2억 91백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4) 푸른도시국 2015년 공원현황에 따르면 용마폭포공원은 서울시 소유 공원이며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 중임

수 있을만한 유인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참고 :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승차인원 변동현황】

연 도	'10	'11	'12	'13	'14	'15
승차인원	9,408	8,736	8,112	7,956	6,318	5,359

- 따라서, 각종 스포츠시설이 설치된 용마폭포공원을 용마산역에 병기함으로써 용마폭포공원의 인지도 향상은 물론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하철 운영기관의 수익창출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청원의 역명병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할 것임
- 한편, 서울시장은 동 청원과 관련하여 역명병기는 국가·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에는 기관과 단체 등의 민원 해소 및 지하철 운영기관의 수익창출을 위해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으로 수요를 흡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⁵⁾

5) 도시철도 7호선 용마산역의 “용마폭포공원” 병기 청원에 대한 의견 제출, 교통정책과-18450(2016.8.29)